

01 교회소식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전야 행사와 축하 예배를 드린다.

02 생명의 말씀

사랑의 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희생해 주셨으며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값지고 온전한 참 자녀의 열매로 나오게 하셨다.

03 기획특집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크리스천이라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04 간증

“정말 꿈만 같습니다~”

폐결핵을 신기한 꿈을 통해 치료받은 인도 비누 성도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행복하다는 윤희준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717호 2015년 12월 2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기뻐하라, 경배하여라! 주님의 탄생을~”

Lyrics

### “행복한 날”

행복한 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기쁨의 순간 목자 사랑 가득해

내 맘에 밀려오는 사랑  
아버지 향한 나의 감사  
우리에게 주신 주님 사랑  
난 이 행복을 노래하리

행복한 날엔 기쁨의 날엔  
우리 맘 가득 밀려오는 사랑  
행복한 날엔 기쁨의 순간  
나 감사하네  
우리 맘 가득히 넘쳐나는 행복

Copyright © 2015.10.15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말씀 자체이신 근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삶은 오직 사랑과 섬김 자체였다. 자신의 뜻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뤄지는 것에 마음을 다하였고, 자신의 안위보다 늘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이 먼저이셨던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끝없는 긍휼과 사랑, 재창조 권능의 역사로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길 기도한다(사진은 본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4 성탄 전야 공연 「사랑의 주」).

### 전야 행사와 축하 예배로 성탄의 기쁨과 감사 되새겨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지난 12월 18일 저녁 9시 50분, GCN 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2015 성탄 점등식’이 있었다. 수천 명의 성도가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접화 스위치의 버튼을 누르자 일시에 성탄 트리의 불이 밝혀졌다. 이어 천상의소리선교단 소속 석진경·김정은 자매의 특송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축하 메시지가 있었다.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전 세계 만민을 깨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되새겼다.

성탄을 하루 앞둔 12월 24일(목) 저녁 7시, 우리 교회에서는 기쁘고 행복한 성탄 전야 예배와 공연이 있다. 청년선교

회연합회 총지도교사인 정구영 목사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드린 후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 주관으로 2015 성탄 전야 공연 「사랑」이 약 60분간 이어진다.

‘내 주님’, ‘하얗게 눈이 내리는 날엔’, ‘기뻐하라’ 등 올해 성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신 31:19) 7곡의 새로운 만민 찬양에 다양한 장르의 무용과 극이 어우러져 감동을 더하며 찬양과 연주, 대사가 라이브로 진행된다.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극 형식의 프롤로그 ‘감사’로 시작하여 23인의 스트링 앙상블(String Ensemble) 연주와 아름다운 무용으로 ‘주님의 탄생 & 사랑’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어 옴니버스 형식으로 각자의 고백을 통해 ‘잊을 수 없는 그날’과 ‘변화된 우리’를 표현한다.

이후 진행되는 축하 공연에서는 연합합창과 파워워십팀, 크리스탈싱어즈, 빛의소리중창단, 글로리워십팀, 브라스 밴드(Brass Band) 등이 출연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피날레는 권능팀과 하모니팀, 전체 출연진과 할렐루야반주단이 ‘축하해요’를 찬양과 연주로 올려드리며, 성탄의 기쁨과 감사는 다음날 성탄 축하 예배로 이어진다.

12월 25일(금)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 ‘2015 성탄 축하 예배’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잊지 못할 은혜’(눅 2:10~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성탄 전야 행사와 축하 예배는 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다.

한편 성탄 전야 행사에는 세계 유일 찬양전문 오케스트라인 우리 교회 닛시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반주단, 그리고 수준 높은 기량을 갖춘 예능팀 등 총 130여 명이 출연한다. 또한 100여 명의 스태프가 참여하여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우리의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얻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마음껏 감사의 향을 올려드리는 기쁜 성탄절이 되길 소망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10)

# 사랑의 주

는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흉악한 죄  
인처럼 벌거벗긴 채 군중들의 구경거리가 되  
는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니다. 이런 고통을 받으셔야 할 이유도 없  
으시고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  
도 있으셨지요. 마음만 먹으신다면 당장이  
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화려하고 빛난  
모습으로 인생들 앞에 나타나실 수도 있었  
습니다. 열두 영 곧 열두 부대가 넘는 하늘  
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  
한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멸하실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묵묵히 고난을 받고 죽임  
을 당하신 것은 이런 희생만이 우리를 구원  
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하고 포근한 날입니다. 그러나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뜻하셨을까요?

장차 드러날 주님의 영광도 잘 아시지만  
그에 앞서 겪어야 할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습니  
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33년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도 곧 다가올 일들을 인해 시  
시각각 애처로우셨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심히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아  
들도 슬프고 외롭지만, 힘이 있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  
을 외면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  
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  
까지 큰 희생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 2.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결  
국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  
에게는 좋은 것만 주셨습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신의 재산도, 수고도 아  
끼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라  
도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자녀  
에게는 어찌하면 제일 좋은 것을 줄까? 어찌

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할까?’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좋은 처소와 좋은 침대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  
습니다. 이는 짐승보다 못한 죄인들에게 생  
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좋  
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구하지 않고 머  
리 돌 곳이 없이 돌아다니셨지요. 거칠고 허  
름한 옷을 입으셨고 때로는 주리기도 하셨  
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시고 부  
요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로는 주무실 시간, 쉬실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여기 저기 다니신 것은 소망 없는 이  
들에게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형상을 따라  
지은 내 자녀들아 가난하지 말아라, 병들지  
말아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서는 인생들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영광도, 몸과 마  
음도, 시간과 소유도 다 주셨으며 결국 목  
숨까지 내어주셨지요. 아무 죄없이 나무 십  
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외면당하실 때는 인  
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상황이었기에 그  
토록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  
버지와 친밀함조차 그 순간에는 포기하여  
내어주시므로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것  
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부와 지혜와  
명예, 모든 축복을 구하는 대로 누릴 수 있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후로 우리에게 내어주  
시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  
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모든 것

을 다 내어주어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  
은 것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  
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 3. 주님의 사랑은 온전한 열매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  
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흙 없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수많은 영혼  
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  
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성령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소육을 따라 열심히 진리대  
로 행하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  
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  
가 되어 존귀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지만 누구나 참된 열매로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을 걷던 사  
람이라도 가다가 멈추거나 다른 길로 벗어  
난다면 다시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만이 구원  
의 문을 통과할 수 있지요. 마음에 할례함  
으로 하나의 문만이 아니라 여러 문을 통과  
하여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침노해 들  
어가는 것입니다(계 22:1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  
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  
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먼저 사랑하  
셨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형벌 대신 영원  
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과 모  
든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과 주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  
여 그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  
시는 값진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독교인들은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대와 행복  
으로 마음이 부풀다. 하나님께서 누구든  
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약속  
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사랑이었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도 생명 다한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  
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을 주셨을까요?

## 1.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전히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  
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  
터 이미 큰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온 우주  
에 가득한 권능과 신성을 낮고 천한 피조물  
의 형상 안에 가두고,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지요. 주리고 목 마르며 때  
로는 자거나 쉴 수도 없는 고단하고 가난한  
삶을 우리를 위해 감당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러 나무 십자가를 지실  
때도 모든 희생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인생들이 침 뱉고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이  
머릿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고통도, 몸이 찢  
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채찍질도, 손발에 못  
박혀서 매달리는 참혹한 형벌도 예수님께서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려은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의미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의미를 살펴봄으로 더욱 능력 있고 보람찬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미래형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구세주’라는 뜻이며 완료형의 의미가 있다.

사실 ‘예수’가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직함과 같아서 어떤 자격을 갖출 때 주어지는 공식적인 호칭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훌륭한 의사를 꿈꾼다고 해서 의사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에 통과하고 정해진 코스를 밟은 후에야 의사라는 자격을 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얻기까지 특별한 과정을 거치셨다.

탄생부터 3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3년의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후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이름 사이에는 ‘구원할 자’와 ‘구원한 자’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 전에는 ‘예수’라는 호칭을 쓰는 것이 옳지만, 부활 사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주님’이라는 호칭을 써야 한다. 성경을 보아도 부활, 승천 사건 이후에는 ‘예수’라는 호칭 뒤에 ‘주나 ‘그리스도’를 덧붙이고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알려 준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는 말씀대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신 것은 언제일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구세주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호칭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이름이기에 부활하신 후에는 구세주의 의미가 담긴 그리스도를 덧붙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알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주나 ‘그리스도’를 덧붙였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강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즐겨 썼다.

따라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원수 마귀 사단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미혹하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벧전 5:8).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전의 호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피의 의미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로서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영적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과 구원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바란다.

### TIP\_ 달력 안에 숨겨진 비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달력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달력이 제정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원후 1년으로 하여 A.D.와 B.C.로 구분하였기 때문이다. A.D.란

Anno Domini의 약자로서 ‘우리 주님의 해’(Year of Our Lord)라는 뜻의 라틴어이다. 즉 ‘기원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서 ‘그리스도 이전’ 곧 ‘기원전’을 뜻한다. 국가와 민족,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

를 표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중심에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

12/20 ~ 12/26

■ 하나님의 마음 ■ 선

■ 생명의 씨 1-3 ■ 의와 인과신 1-2

■ 공간과 차원 1-5 ■ 1차 영혼육 1-5

■ 십자가의 도 1-2 ■ 십계명 9-10

■ 창세기 강해 76-80 ■ 에녹 2

■ 의와 틀을 깨뜨리자 2

■ 요한일서 강해 23-29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열매 [이수진 목사]

■ 정직한 자 3 [이미영 목사]

■ 생명과 평안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0 [이희선 목사]

■ 옮기 강해 21 [신동초 목사]

■ 열재앙 3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3 [김수정 목사]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여여쁜 울동 48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5

■ 창조와 과학 19 ■ English 1

■ 내 마음의 찬양 23 ■ 옛날 옛적에 8

■ 모두 드려요 40 ■ 즐거운 요리 18

**해외성회 및 성탄특집**

■ 성탄전야예배

■ 성탄축하예배

■ 믿음으로 걸어온 길 21

■ 회상 [시즈] 8

LOVE

**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

# “비누! 우토, 우토! 신기한 꿈을 꾸 후 폐결핵을 치료받았어요.”



건강을 회복하여 남편, 아들과 함께.  
비누 꾸마리 성도  
(24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델리만민교회에 출석하는 남편을 통해 저도 2013년 1월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뎠는지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저 남편을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천식과 심장병으로 죽음을 앞둔 친정아버지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김상휘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뒤 소생해서서 완쾌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며 저는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점차 목자의 사랑을 깨우치면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지요.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즐겨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5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먼 시택으로 내려가 시누이와 시동생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한 달 반쯤 뒤, 몸이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병원 엑스레이 촬영 결과, 폐결핵이었지요.

병세가 악화되어 저는 걸을 수도, 무엇을 먹거나 마실 수도 없었고, 두통까지 수반되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며 아파서 울기도 많이 하였지요. 저는 약 한 달간 먹던 약을 끊고,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본인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기도요청을 하여 10월 26일 주일, 화상을 통해 저를 대신하여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지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청중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던 당회장님께서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비누! 우토(일어나세요), 우토(일어나세요!)”  
제가 울면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꿈에서 깨어나 ‘참 신기한 꿈이다.’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일어나 제 몸을 살펴보니 숨 쉬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두통도 사라졌으며, 걸을 때 힘이 주어지니 놀람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를 하였지요.

2015년 1월에는 병원에서 폐결핵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할렐루야!

그 후 저는 치료해 주신 하나님과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너무 감사하여 남편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일가친척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20명 정도가 전도되었지요. 교회에서도 각종 봉사를 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3~4년 전부터 저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연골이 닳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부축을 받거나 지팡이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성당에만 다녔는데 지난 8월 초에는 큰아들(주영 집사)의 전도로 ‘2015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였지요.

그런데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날 수련회장에 갈 때는 남편의 부축을 받았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에는 치료받아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지 않으니 살 것 같고 좋았는데 9월 22일 정기 건강검진 시 위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도 쪽에 암이 있어 위를 많이 잘라내야 한다고 하였지요. 이 사실을 안 큰아들의 권유로 저는 서부산 만민교회에 등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섭리가 담긴 ‘십자가의 도’ 설교를 반복하여 들으며 설교 후 환자기도를 받곤 하였습니다.

10월 1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하였지만 세 시간 만에 끝났고, 신속히 회복되어 6일 만에 퇴원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저의 아직 어린 믿음으로는 위암을 치

#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기쁨,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료반을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수술이 잘된 것만으로도 큰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부산에서 올라와 인천 큰아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하는 재발방지를 위한 항암치료 대신 하나

님께 의지하기로 한 것이지요. 당회장님 설교들을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듣고 간증, 설교, 찬양 등 24시간 방송되는 GCN 방송을 즐겁게 시청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

다. 또한 당회장님께서 설교 후 ‘환자기도’

를 해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받았지요. 그 결과, 식사도 잘 하고 소화도 잘되며 아무런 후유증도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저희 부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무안단물(출 15:25)을 눈꺼풀에 바른 뒤 쌍꺼풀이 생겨 부드러운 눈매가 되었으며, 남편 역시 무안단물로 내려앉았던 눈꺼풀이 올라가고 속쌍꺼풀이 생겼지요. 더욱이 허리협착증으로 한쪽 다리가 짧은 것처럼 절뚝거리며 걷던 남편이 지금은 잘 걷고 다리에 감각도 느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행복한지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55년 동안 성당에 다니면서도 늘 마음이 곤고하였는데, 지금은 당회장님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대로 살지 못한 것들과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한 일들을 깨우치며 통회자복 하고 나니 70평생 목은 때가 벗겨진 것처럼 마음이 개운합니다.

평생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참 목자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남편 주하경 성도와 큰아들 내외와 함께한 윤유춘 성도 (71세, 3세대 32교구)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매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민성결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4)281-2468, 010-9773-7017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281-2468,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아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